

경제한파 무색한 광주 교육열

‘교육비 年 수백만원’ 사립 초등학교 입학 치열한 경쟁

삼육초·살레시오초·송원초 최고 3대 1

국립 광주교대부설초는 9대 1 경쟁률

지독한 지역 경제의 침체도 광주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누르지 못했다. 연간 수업료가 수도권 사립대 수준인 광주지역 사립초등학교의 경쟁률이 올해도 크게 상승했다. 광주교대 광주부설초등학교 2010학년도 신입생 선발 추첨이 실시된 3일 이 학교 강당에서는 500명이 넘는 학부모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추첨 결과를 지켜봤다. 이날 오전(남학생 48명)과 오후(여학생 48명)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추첨에선 434명의 학생이 몰려 남자 9.1대 1, 여자 6.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국립인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는 학비가 무료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적은데다 특화된 교육을 실시한다는 인식 때문에 해마다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연간 학비만 수백만원에 이르는 사립초교도 경기 불황이 무색할 정도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달 24일 신입생 선발을 마친 삼육초교는 96명(일반반 32명, 영어이머전반 64명) 모집에 192명이 몰려 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2008학년도 1.4대 1, 2009학년도 1.9대 1보다 높은 경쟁률이다. 삼육초교는 ‘일반반’ 1학년과 영어위주로 수업이 진행되는 ‘영어 이머전반’ 2학년 등 모두 3학급으로 운영되는 데, ‘영어 이머전반’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입학금 60만원과 1분기 수업료 135만원 등 모두 195만원을 완납해야 한다. 연간 4차례에 걸쳐 나눠내는 수업료는 입학금을 포함해 총 600만원이며, 스쿨버스터비와 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업 비용 등을 합치면 매년 1천만원에 가까운 교육비가 들어간다. 일반반의 경우는 그나마 저렴(?)해 분기별 수업료는 66만원이며, 연간 교육비는 500만원선이다. 삼육초교 관계자는 “우수한 교사

진과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때문에 수업료가 다소 높게 책정될 수 밖에 없다”면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고 말했다. 3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살레시오와 송원초교의 입학 경쟁도 치열했다. 살레시오초교는 108명 모집에 219명(2대 1)이 지원했고, 송원초교는 96명 모집에 307명(3.2대 1)이 몰렸다. 살레시오초교와 송원초교는 동일하게 입학금 50만원에 1분기 수업료 69만19천원을 받고 있으며, 이들 두 학교에 다니기 위해선 수업료와 교복, 급식비 등 연간 500만원 안팎의 교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10만원권 수표 580장 위조

금은방 등에서 133장 사용

10대 2명 검거

광양경찰은 3일 10만원권 수표 수백장을 위조해 광주·전남지역 금은방 등에서 사용한 김모(17)군과 박모(17)양을 유가증권위조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지난달 중순경 경기 오산시 모 원룸에서 컬러 프린터를 이용해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00장을 위조하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580장의 수표를 위조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친구인 또다른 김모(19)군 등 2명과 함께 수표를 위조한 뒤 지난달 28일 강진군 모 금은방에서 7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사는 등 광주·전남 등에서 위조수표 133장(1천330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공범 김군 등 2명은 최근 충남 논산경찰에 붙잡혔으며, 이날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김군 등은 경찰에서 “자취방에서 위조수표 사용과 관련한 TV프로그램을 본 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공모했다”고 진술했다. /동부취재본부=김청수기자 chong47@



장애인 장기자랑

3일 광주시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2009 북구 장애인 재활증진대회 및 장기자랑’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강사의 지도 아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다. 북구청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1천500여명이 참석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모 교회상조회 前 이사장

16억 부당대출 혐의 구속

화순경찰은 3일 교회에서 운영해 오던 상조회 예치금을 유용<광주일보 9월 10일자 6면>한 광주 모 교회 상조회 전 이사장 A(63)씨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2년

12월 23일께 2천만원 이상 대출 시 무담보 대출을 불허한 규약을 어기고 보증 등 확인절차 없이 대출 청구서에 스스로 서명해 4천만원을 대출 받은 등 지난 3월까지 234차례에 걸쳐 15억9천만원 가량을 대출받은 혐의

를 받고 있다. 노씨는 지난 4월 “이사장이 별도의 절차 없이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결의했다”는 내용을 1999년 당시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노씨는 경찰에서 “대출은 받았지만, 감사 등의 등 적절 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5월 6일 이 교회 상조회는 예치금이 바닥나면서 문을 닫았으며, 피해 신도만 162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형기자 golee@



유근섭 전남지방경찰청장이 3일 무안군 남악신도사에서 열린 경찰관기동대 창설식에서 기동대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제공>

전남경찰 ‘기동대’ 추가 창설

108명 규모…집회·시위 현장관리 등 투입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유근섭)은 3일 무안군 남악신도사내 기동대 건물에서 ‘경찰관기동대’ 창설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창설된 기동대는 108명 규모로, 경찰청의 전·의경 갑종 방안에 따라 최근 해제된 경찰악대 등을 대신해 신설됐다. 전남 경찰은 이날 부대 신설로 기존 2기동대에서 3기동대 체제를 갖추

게 됐다. 이 기동대는 집회·시위 현장관리와 함께 방법순찰, 교통사고 예방, 재난재해 구호·복구 등 각종 치안현장에 투입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기동대 요원으로 선발된 신입 순경 60명이 6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경찰관으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수매 벼 2만1천가마 ‘비축미 둔갑’

삼도농협, 차액 횡령 의혹

광산경찰, 창고 8곳 수색

광주광산경찰은 광주 삼도농협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매한 벼를 공공비축미로 전환해 그 차액을 횡령했다는 정황을 포착,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3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전남 오후 삼도 농협과 양곡창고 등 8곳을 압수수색, 회계장부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하고 불법 혐의가 있는 지 조사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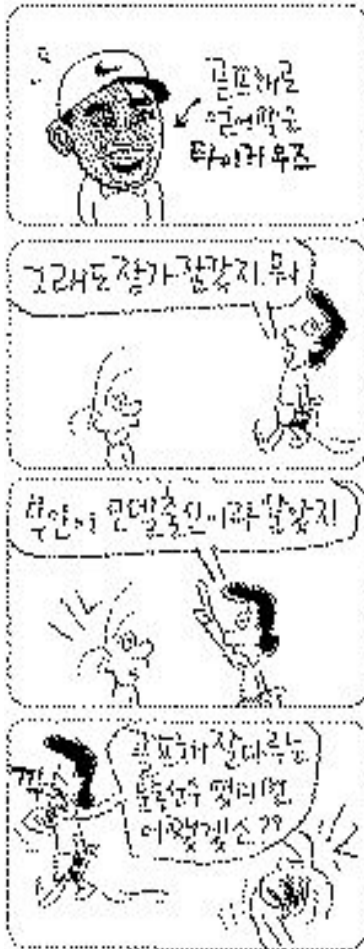
경찰은 삼도 농협이 지난해 말 시중 벼값보다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 단가가 더 높다는 점을 노려 자체 수매한 벼 2만1천여 가마를 공공비축미로 전환하고 그 차액을 횡령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공비축미의 가마 당 매입가격은 5만7천 원으로 시중 벼값보다 5천 원 가량

더 비쌌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도 농협은 또 농협 차원에서 직접 집행할 수 없는 정부의 양곡조절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해 벼 수매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삼도농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 농협 감사는 물론 광주지방경찰청 및 광주지검에서도 지난 6월부터 조사를 했으나 현재까지 이렇다할 불법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억울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농협은 농수산식품부의 별도 허가 없이는 자체 수매한 쌀을 공공비축미로 전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매한 문서에 대한 검토가 끝나기 전까지 횡령 금액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자를 밝히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나원침 (7970) 김장두



공사현장 공갈 돈 뜯은

모 환경신문 기자 구속

광주동부경찰은 3일 공사현장을 돌며 돈을 뜯어낸 모 환경신문 기자 김모(59)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2007년부터 광주와 장성 등의 불법 폐기물 방치 현장을 촬영해 도청 등에 민원을 제기한 뒤 민원 취하명목으로 4개 업체로부터 27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형호기자 khh@

석방 4일만에 또 어린이 성추행

성나팔

○성추행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지 4일 만에 또다시 어린이를 성추행한 20대에 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3일 꾀질방에서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열람을 명령.

○재판부는 “김씨가 성추행으로 구속됐다가 석방 4일 만에 다시 어린이를 성추행한 점으로 미뤄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며 양형이유를 설명.

○2003년 아동 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씨는 지난해 6월에도 성년 여성을 추행해 구속됐다 풀려났으나 나흘 뒤인 지난 7월 25일 A(11)양을 성추행했다가 또다시 ‘죄고랑’. /최경호기자 choice@

심아전기를 못쓰는 영업장소에 최고의 선택!

전기보일러

- 1. 전기보일러는 전기만으로 작동하는 보일러로, 가스보일러와 달리 화재 위험이 없습니다.
- 2. 전기보일러는 설치 및 유지보수가 간편하며, 연료비가 없습니다.
- 3. 전기보일러는 환경 친화적이며, 실내 공기 오염을 줄여줍니다.
- 4. 전기보일러는 다양한 용량과 모델이 있어, 다양한 영업장소에 적합합니다.

광주대리점 **삼우상사**

문의: 1544-1219

냉·온 풍수기 렌탈 월 19,900원

풍수기프라자 **1544-1219**

여름에는 시원한 냉방, 겨울에는 따뜻한 온풍을 제공하는 풍수기 렌탈 서비스. 월 19,900원부터 시작합니다. 다양한 용량과 모델이 있어, 다양한 영업장소에 적합합니다.